

제98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4.07.16.(화) 14:00 ~ 17: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석 : 위원 총 13명 중 9명 참석

- 참석위원 : 이재호 의장, 강원구 평의원, 김주용 평의원, 김태균 평의원, 박상현 평의원, 윤소라 평의원, 이원재 평의원, 이홍서 평의원, 호정화 평의원
- 불참위원 : 노재성 부의장, 김홍환 평의원, 노승종 평의원, 허준석 평의원
- 배석 : [본교] 기획처장, 예산팀장, 예산팀 최슬기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기획팀장, 기획팀 김진필

4. 의안

○ 보고사항

- 현 테니스장 부지 개발(안)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 신축(안)
- 율곡관 정문 캐노피(canopy) 설치(안)

○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자문사항

-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5. 주요 회의 결과

가. 보고사항

- 기획팀장은 학교의 주요 사안인 현 테니스장 부지 개발(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 신축(안), 율곡관 정문 캐노피(canopy) 설치(안)에 대해 설명하다.
- 위원들은 율곡관 정문 캐노피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학교의 재원이 투여되어야 할 곳이 많은 현 상황에서 캐노피 설치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평의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음을 학교 당국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다.

<간서명 란>

의장

0/393

나.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1) 심의사항

-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제8조(대학원) 및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별표4 : 공학대학원 학과 신설(응용재료공학과, 화공응용화학과), 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융합인재 및 영재교육), 교육대학원 전공명 변경(교육행정→미래교육컨설팅) 반영
 - 제18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직원) : 교직원 관련 조항에 조교 관련 내용 삭제
 - 제44조(교육과정) : 교육부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폐지에 따른 별도 세부 사항 근거 마련
 - 제45조(학점인정) : AUT 3+1과정의 복수학위 근거 마련
-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다.

2) 주문사항

- 제20조(직원 및 조교) 제1항에 '계약직원' 이 아닌 '임시직원' 용어를 사용하는 사유를 질의하고, 기획팀장은 직원인사규정에 임시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학칙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였음을 설명하다. 평의원들은 상위 규정과 법률 근거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하다.
- 특수대학원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한 총괄 기구의 신설을 주문하다.
 - 특수대학원의 학과(전공) 신설과 폐지, 교육과정 등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특수대학원이 비록 책임운영부서이기는 하나 학부와 대학원 간 교수의 중복배속, 타 대학원 간 교육과정의 중첩 등으로 대학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정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기구 신설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기획팀장은 유관 부서에 질적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추후 진행 상황을 평의원회에 보고할 것이라 답하다.
- 대학원의 정원 조정 원칙 마련을 주문하다.
 - 전공 쏠림현상이 학부를 넘어 대학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다. 이공계 열에서 대학원 정원을 전부 모집할 시 인문사회계열은 이후 선발 절차를 진행해

<간서명 란>

의 장 0/295

도 자연 불합격 처리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반대학원의 학과별 정원 배정의 원칙이 필요한 시기임을 설명하다. 덧붙여 배정 원칙을 논의할 시 현재 정원을 적게 운영하는 학과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어야 함을 당부 하다.

- 대학원 수요가 증가하여 입학 지원자가 모집 정원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간, 그리고 특수대학원 학과 간 탄력적인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기획팀장은 유관 부서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정원의 탄력적 운영 방안, 계열별 정원의 적정 인원 등 대학원 정원 조정 원칙을 논의하겠다고 답하다.

다. 자문사항

○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 보고사항

- 기획조정실장은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다.
 -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2023학년도 결산에 의거한 전기 이월자금 예산편성 ▲전년도 승인 미집행분에 대한 이월 예산편성 ▲의료파행 장기화에 따른 의료수입 목표 하향 조정 ▲의료원 비상경영체제 운영에 따른 지출 예산 감소 반영 ▲기타 정책 추진 사항 등의 반영(파워플랜트 증축, 음암 병실 추가 조성 등)
- 기획조정실장은 이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준비사항을 보고하다.

2) 자문사항

- 의료 파행의 장기화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수치가 확인되는데, 본 자료를 얼마나 보수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질의하다. 기획조정실장은 도전적으로 잡은 수치이나 낙관적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아니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답하다.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미래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가 조정 등 정부 지원책에 대한 예산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지출 감소 등의 노력과 함께 가능성의 높은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하다.
- 주요 지표의 연간 추이 등을 그래프화하여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하며, 2차 추경 자료 작성 시에는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당

<간서명 란>

의장

0/242

부하다.

- 의료진이 BIG5 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고, 그러한 변화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법인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병원은 법인의 지원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의 지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도 법인전출금 일부를 조정했듯이 법인에서도 병원의 상황을 알고 있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법인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하다.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법정부담금 차액 부담을 2차 추경에 반영하고, 신규 실습실 건축 재원도 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주문하다.

○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 보고사항

- 기획처장이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다.
 -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2023학년도 결산 미사용이월금 추가분 반영 ▲국고사업 등 수입 변동에 따른 지출예산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반영

2) 자문사항

- 법인 운영의 책무성을 준수하고 학교 재정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부담금 전입금 부담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다.
- 2024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이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의 노력과 그 효과에 대해 질의하다. 기획처장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글로벌IT 중문 과정 모집을 시작했으며 22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하였음을 보고하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기숙사, 강의실 등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입학생 규모를 논의 중이며, 향후 유학생 유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임을 보고하다(회의 이후 2024-2학기 글로벌IT 중문 과정 모집인원을 83명으로 확정함).
- 강의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재관 등 별도 관리 중인 강의실 이용에 대해 제안하다. 일례로 필요시 의과대학과 협의하여 본교가 송재관 강의실을 후순위로 사용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연동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다.
- 법인의 토지 중 요양병원 사업에 사용 중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공간

<간서명 란>

의 장 이기호

을 우리 대학의 필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필요시 법인에 제안할 것을 주문하다.

- AUT사업이 산학협력단 회계로 운영되어 본 자료에서 관련 운영 지표 확인이 어려운 바,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기 대학평의원 회에 해당 자료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의료원 계좌 명의를 총장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진행 상황을 질의하다. 예산팀장은 30년 넘게 분리 운영하던 사항을 급작스럽게 변경해야 하는 상황임을 보고하며 세무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시스템 점검을 통해 내년부터 견고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을 보고하다.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이 사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교와 의료원이 협조할 것을 당부하다.
- 교육비 규모가 지난 3년 동안 크게 확대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다. 예산팀장은 국고사업, LINC사업, AUT사업 등으로 산학협력단 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하다.
- 최근 대학원 진학 수요 증가로 인한 입학 지원자 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간, 그리고 특수대학원들 간 긴밀하고 유연한 정원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원 조정 원칙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해 본교 장애인 미신고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취지에 맞게 중증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수립할 것을 권고하다.
- 기부금 확산을 위한 기부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다. 상을 받으면 자연스레 상금을 대학에 기부하는 등의 선례를 통해 자연스레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다.
- 기획처장은 장기간 학부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현재 사립대 재정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 특히 본교는 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인프라 투자는 물론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우수 교직원 확보 등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서 학부등록금 인상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2024.07.16.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이재호	(재)명기호
평의원	강원구	(재)명기호
평의원	김주용	(재)명기호
평의원	김태균	(재)명기호
평의원	박상현	(재)명기호
평의원	윤소라	(재)명기호
평의원	이원재	(재)명기호
평의원	이홍서	(재)명기호
평의원	호정화	(재)명기호
간사	윤정용	(재)명기호